

-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먼저 너희가 영혼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집에서 살면서 너희 자신을 쉬브 바바의 자녀이며 손주라고 여겨라. 이것이 노력을 요한다.
- 질문:** 노력하는 너희 자녀들은 어떤 비밀을 아주 잘 이해하느냐?
- 대답:** 너희 노력가들은 아무도 아직 천상의 16도로 완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모든 이가 노력하고 있다. “나는 완전해졌다”라고 말할 힘을 지닌 이는 아무도 없다. 만일 영혼이 완전해졌다면 그는 몸을 벗고 가서 서를 리전에 앉아 있을 것이다. 신랑이 와서 신부들을 집으로 데려가기 전에는 아무도 지고의 지역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것은 깊은 비밀이다.
- 노래:** 네 가슴의 거울에 너의 얼굴을 비쳐보아라.

음 산티. 쉬바 신이 말씀하신다. 너희 자녀들은 이 사람의 이름이 쉬바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해했다. 저 말씀들은 무체인 신 쉬바가 말한 것이다. 오직 쉬브 바바만이 무체인 분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이해한다. 이것은 그 어떤 인간에게도 해당되지 않는다. 무체인 쉬브 바바, 정화자는 지식의 대양이다. 그가 여기 앉아서 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설명한다. 오직 그 하나만이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라고 불린다. 너희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영혼인 자신도 이해해야 된다. 인간들은 그들의 영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영어로는 이것을 “자아-각성”이라고 한다. ‘자아’란 영혼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심지어 영혼이 이마 가운데서 별처럼 빛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들은 단지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만일 영혼들이 별이고 무체라면, 아버지도 역시 무체라는 의미가 된다. 어느 쪽이 더 크지도 더 작지도 않다. 영혼이 그렇듯이 지고의 영혼도 그렇다. 그는 지고이며, 높은 중에서 가장 높다. 제일 먼저 영혼을 이해해야 한다. 영혼은 누구의 자녀인가? 어떻게 불순한 데서 순수하게 변하는가? 어떻게 환생하는가?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너희에게는 제일 먼저 영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아버지가 와서 영혼들이 별과 같다는 것을 영혼에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지극히 은밀하다. 이 눈으로는 그들을 볼 수 없다. 그들을 보려면 신성한 시선이 필요하다. 병원에서 영혼을 보려고 아무리 고심해도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없다. 그것은 매우 미묘하다. 우선 너희들은 “영혼인 나는 지극히 미묘하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내면에 84생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너희 영혼들에게 아버지가 설명한다. 지고의 영혼은 친히 너희들이 인식하게 해준다. 인간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고의 영혼이 직접,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며 아주 미묘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만든다. 드라마에서의 전체 행위는 정해져 있다. 누군가의 역할 중에서 아무 것도 바뀔 수 없다. 아버지가 말한다: 누군가의 병 등을 고쳐주려고 내가 오는 게 아니다. 너희 육신의 질병 등은 너희의 카르마에 의한 고통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말한다: 오 정화자여, 지식으로 가득한 분이여, 지식의 대양이여, 오소서! 와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소서! 저희들에게 라자 요가를 가르쳐 주소서. 사람들은 신을 소리쳐 부른다. 그렇다면 크리스나는 그 사이에 어디에서 오느냐? 모든 이가 크리스나를 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는 무체이다. 그는 슬픔의 제거자이며 행복의 공여자이다. 그가 어떻게 오느냐? 그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행하느냐?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경전에는 이것에 관한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 기타는 모든 경전 중에서 최고의 보석이다. 이 기타를 통해서 황금시대에 원래의 영원한 신인 종교의 수립이 이루어졌다. 나중에 이 모든 자녀들이 왔다. 무엇이 주된 종교의 경전이야? 아버지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기타가 주된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브라민 종교, 태양 왕조, 달 왕조의 수립이 일어났다. 합류시대는 브라민 종교의 때이다. 바바가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슈드라에서 브라민으로 변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이해한다. 그런 다음, 나중에 우리는 태양 왕조에 속하고, 그 다음에는 달 왕조에 속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아주 확고하게 기억해야 한다.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브라민 종교, 신인 종교, 그리고 전사 종교를 세웠다. 영혼들에 대해 바바가 이미 설명해주었다. 자신들을 영혼이라고 여기고 아버지를 기억하는 데 대해서 혼란스러워지는 자녀들이 일부 있다. 오! 그러나 너희는 영혼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의 아버지는 쉬바이다. 신체기관이 없이는 영혼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체인 아버지에게도 역시 기관들이 필요하다. 그는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영혼의 형태가 무엇이며, 지고의 영혼의 형태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그들은 그저 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이 점의 형태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결코 지워지지 않는 불멸의 역할이 자신의 내면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모든 영혼은 각각 영원한 역할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은 영구히 계속된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낡은 세계가 끝나면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 바바가 와서 불순한 세계를 정화한다. 4개의 주된 경전이 있어서 그것들을 통해 4대 종교가 세워진다는 것을 바바가 이미 설명해주었다. 맨 처음에는 기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 불교, 기독교의 경전들이 있다. 나중에 확장이 일어난다. 다른 모든 경전들은 기타의 자녀들, 또는 손주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노래한 “슈리마드 바가바드 기타”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인간도 아니고 신인도

아니다. 나는 높은 중에서 가장 높은, 무체인 지고의 영혼이다. 나는 매 사이클마다 너희를 가르치러 이 보통 몸에 들어온다. 너희들은 이제 너희가 틀림없이 브라민이 되었으며 나중에 신인이 되리라는 것을 이해한다. 계속해서 확장이 일어난다. 물론, BK가 된다는 것이 이모네 집에 가는 것 같지는 않다! 집에 살면서 너희 자신을 쉬브 바바의 자녀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주었다. 너희는 쉬브 바바의 자녀이면서 그의 손주들이다. 무지 속에 있는 자들은 "나는 할아버지의 손주인 동시에 그의 자녀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할아버지에게 속한다. 너희들이 쉬바의 가문에 속하고, 그 다음 쉬브 바바가 너희를 입양해서 브라마 쿠마르와 쿠마리로 만든다. 저 분은 무체이고 이 사람은 육신이 있다. 너희는 무체인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그러면 그가 말한다: 나는 브라마를 통해서 너희를 입양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브라마의 자녀들이며, 또한 나의 손주들이다. 너희들은 쉬브 바바를 통해서 유산을 받는다. 종교 경전을 통해서 종교가 세워진다. 베다를 통해서 어떤 종교가 세워졌느냐? 아무 것도 없다! 마하바라타는 종교 경전이 아니다. 성경은 종교 경전이다. 기타를 통해서 신인 종교가 세워지지만, 그러나 바가바드와 라마야나에 그들은 그저 과장된 이야기들만 써놓았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종교 경전이 아니다. 주된 것은 영혼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영혼이 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그건 틀린 얘기다. 사실 몸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그 향기를 맡는 것은 영혼이다. 슬픔과 행복을 느끼는 것은 영혼이다. '마하트마'(mahatma, 위대한 영혼)와 '팍 아트마'(paap atma, 죄 많은 영혼)라는 표현이 있는데도, 그들은 영혼이 지고의 영혼이라고 말해 왔다. 그건 엉터리다! 센터에 오는 많은 자녀들이 영혼이 뭔지 모른다. 너희 자신은 영혼은 별과 같다고 말한다. 전체 역할이 각 영혼 안에 기록되어 있다. 영혼들은 아주 미묘하다. 영혼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바바가 신성한 비전을 통해서 너희에게 영혼을 비전으로 보여줄 수는 있다. 너희가 비전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 그것이 다시 사라질 수 있으니, 너희가 아주 미묘한 영혼이라는 믿음을 지각에 키워야 한다. 비베카난다의 예시가 있다. 그는 빛의 비전을 보았는데, 그 빛이 누군가에게서 나와서 그에게 합쳐졌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비전에 불과했다. 합쳐지는 것과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이는 영혼의 비전을 받는다! 너희 자신이 바로 영혼이다. 그들은 그런 쓸데없는 찬양들을 써놓았다. 만일 너희가 비전을 받는다 해도, 무슨 혜택이 있겠느냐? 전혀 없다! 만일 팔이 넷 달린 모습을 비전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곧 너희가 락슈미나 나라얀이 된다는 뜻이냐? 너희들은 그저 너희의 목적과 목표를 비전으로 본 것 뿐이다.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가 무슨 비전을 볼 수 있느냐? 영혼이 별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도 역시 하나의 별이다. 신의 빛이 천 개의 태양보다 더 밝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아르주나가 말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그래서 아르주나는 그분에게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 예전에는 비전을 받는 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전에 들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비전을 보곤 했다. 그들은 마음의 소망이 이뤄졌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런 것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라자 요가를 가르치고 너희를 정화하려고 온다. 내가 시체에게 목숨을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만일 너희가 아프면 의사에게 가거라! 나는 너희를 정화하려고 왔다. 순수해져라, 그러면 너희가 순수한 세계에 갈 것이다. 불순한 세계는 반드시 파괴될 것이다. 오직 그런 다음에야 순수한 세계가 세워질 것이다. 마하바라타 전쟁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도 보여주지 않는다. 너희 자녀들은 이제 세계의 시작, 중간, 끝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 듣고 있다. 어떤 이의 지각에도 이 지식이 없다. 그들은 영혼에 관한 지식이 없다. 일부는 와서 묻는다: 바바, 영혼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저희들이 바바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바바는 놀란다. 만일 봉사하는 이들이 신과 영혼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도대체 남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했던 것이냐? 물론 그들은 남들에게 멀리를 읽어준다. 선생들도 역시 동수대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된 선생들이 정해진 클래스를 순회하며 각자에게 영혼의 형태가 뭔지, 신의 형태가 뭔지 물어보는 것이다. 모든 이를 지도해줘야 한다.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며 아버지를 기억하기 전까지는 죄가 없어질 수 없다. 인간들의 지각은 완전히 돌처럼 되었다. 그들을 신성한 지각을 가진 이들로 만드는 데는 노력이 든다. 딜와라 사원을 좀 보아라. 검은 돌로 만든 아디 데브의 형상이 있고, 위에는 천국의 장면을 만들어 놓았다. 그 사원을 지은 자들은 갑부들이었지만, 그들은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마하비어'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자가담바는 마하라니(위대한 왕비)가 된다. 그녀는 아디 데브의 딸, 사라스와티이다. 무수히 많은 사원들이 그녀에게 지어졌다. 그 사원들의 관리인들은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원의 승려들은 그저 이렇게만 말한다: 저희들은 다만 모든 것을 돌보기 위해서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아무개가 사원을 지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저희들이 뭘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머리를 숙여 절하고는 다시 가버린다. 너희들은 이제 참으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은 사람에서 신인으로 바뀌는 공부이다. 사람들은 기타 바반(기타의 집)을 짓지만, 누가 기타를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갑부들이 비록 거대한 사원들을 짓지만 그들은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버지가 와서 드라마 전체의 의미를 너희에게 설명한다. 앗차. 만일 다른 것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으면, 그저 계속해서 쉬브 바바만 기억하여라. 그것도 역시 좋다. 너희는 아버지를 기억한다. 쉬브 바바는 모든 영혼의 아버지이다. 만일 죽음의 순간에 쉬브 바바 외엔 아무 것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천국에 간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제일 먼저, 너희가 영혼이라는 것과 바바가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며 그의 이름이 쉬바라는 것에 믿음을 가져라. 영혼의 형태는 점이다. 지고의 영혼도 역시 하나의 점이다. 영혼이 84생에 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듯이, 지고의 영혼의 역할도 역시 불순한 자들을 정화하는 것이다. 신봉의 길에서 나는

모든 이의 소망을 이뤄주었다. 신성한 비전을 주는 열쇠는 아버지의 손에 있다. 이 역할도 역시 드라마에 정해져 있다. 열렬한 신봉을 행함으로써 비전을 받는다. 불순한 욕망들은 악마(라반)에 의해서 충족된다. 신통력 등을 통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은 나의 역할이 아니다. 인간에게 슬픔을 일으키려는 욕망은 내가 이뤄주는 소망이 아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자녀들이 노력가이다. 아직까지는 천상의 16도로 완전해진 이가 아무도 없다. 너희는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한다. 아무도 자기가 천상의 16도로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할 힘을 갖지 못했다.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될 수 없다. 그 단계는 끝에 가서 도달할 것이다. 밤낮으로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어도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지금 이때에 누가 카르마티트가 되었다면, 그는 몸을 벗고 가서 서틀 리전에 앉아 있을 것이다. 아직은 아무도 지고의 지역으로 돌아갈 수 없다. 신랑이 먼저 돌아가야 하고, 그 뒤를 신부들이 따라갈 것이다. 누가 그분보다 앞서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멀리 내다보는 지각이 필요하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테.

실천 요지:

1. 비전 등을 보고 싶다는 소망을 갖지 마라. 지각에 믿음을 키우며 노력하여라. 제일 먼저, 너희가 아주 미묘한 영혼이라는 확신을 가져라.
2. 병들어 아플 때 등, 아버지를 기억하며 머물러라. 질병은 카르마로 인한 고통이며, 오직 기억을 통해서만 영혼이 순수해질 것이다. 순수해져서 순수한 세계로 가라.

축복: 미묘한 죄를 벗어나 자유로워짐으로써 너희의 완전하고 완성된 단계를 얻고 성공의 화신이 되어라.

카르마의 기본원리에 대한 지식의 면에서 아주 느긋해진 자녀들이 일부 있고, 이런 이유로 그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작은 죄를 짓는다. 카르마의 철학에 대한 원칙은, 만일 너희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누군가의 결함을 퍼뜨리거나, 남들의 편을 든다면, 그것도 역시 범죄의 공범이 되는 길이다, 라는 것이다. 오늘 너희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지 몰라도 내일 그 사람이 너희의 명예를 곱절로 훼손할 것이다. 이러한 작은 죄들이 모여서 너희가 완전하고 완성된 단계를 얻는 데 방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카르마의 기본원리를 알고, 죄에서 벗어나 너희 자신을 해방시키고, 성공의 화신이 되어라.

솔로건: 아디 피타 (최초의 아버지, 브라마 바바)와 대등해지기 위해서는 힘, 평화, 모든 미덕들의 기둥이 되어라.

*** **옴 산티 O M S H A N T I** ***